

국내·외 자원봉사 한국불교 알리기 나서

대불청, 연등회 국제 자원봉사 교육...외국인 30여명 동참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독일, 프랑스, 베트남 등 20개 국가에서 온 60여 젊은이들이 한국불교와 중요유형문화재 제122호인 연등회를 알리기 위해 한마음이 되는 자리가 열렸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는 4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3 연등회 국제자원봉사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한국불교와 연등회 국제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문화부총장 진명스님, 자우 스님(비로자나 국제선원) 전준호 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80여 명이 참석했다.

진명스님은 격려사에서 "연등회는 불교인들의 축제를 넘어 시민과 어우러져 만드는 한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했으며, 외국인들의 연등회 참여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축제로 인정받고 있다"며 "스스로 참여하는 축제인 연등회를 통해 맑고 밝은 에너지를 느끼고 그 에너지를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준호 회장은 "여러분은 단순히 축제 참가자가 아닌 축제를 준비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손님을 맞이하게 됐다"며 "세계인들이 서로 우의를 다지고 불교를 배우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등회 내·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연등축제 동영상 시청하고 서포터즈 진행 일정소개 받은 뒤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으로 이동해 '만남, 불교의 이해'를



'2013 연등회 국제자원봉사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삼귀의 예를 올리고 있다.

6주간 팀별로 불교문화익회

25일 청년위한 콘서트개최

"한국불교 이미지 쇄신 기대"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첫날이라 분위기는 서먹했지만 참가자들은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전 세계인들과 교류를 한다는 것에 기대감을 표했다

스웨덴에서 온 페르(27·남)씨는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연등회를 접하기 까지 저에게 맞는 봉사활동을 찾지 못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방문객을 기쁘게 하는 일 외에도 한국 불교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기대된다. 왜냐하면 스웨덴에서는 아직 불교는 베일에 싸인 신비한 종교라 불교의 핵심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알

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캐나다 출신의 에이미(33·여)씨는 "한국불교에 관심이 많다. 특히 다른 불교국가보다 비구니 스님의 지위가 높고 많은 기회를 주는 점에 매력을 느낀다"며 "명상과 사찰에서의 생활도 알고 싶어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불청은 '2013 연등회 국제 자원봉사단'을 3월 27일까지 모집하고 내국인 54명과 외국인 49명 지원자 가운데 면접을 통해 각 38명을 선발했다.

지원자들의 지원 동기는 다양하다.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고, 한국불교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목적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생활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지원자도 있었다.

이렇게 모집된 76명의 자원봉사자들은 6주간 3그룹으로 나뉘어 △4월 10일 한국불교·연등회 △4월 17일 불교의식과 문

화이해 △4월 25일 쓰담쓰담 통통콘서트 △5월 4일 템플스테이 △5월 9일 특강미션 등을 주제로 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5월 11~12일 불교한마당 및 연등축제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이후 6월 1일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봉사활동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우 스님과 하영대 대불청 연수원장, 박상희 불족준비위원회 팀장이 강사로 나서 한국불교 역사 및 불교문화와 연등회 장엄 등에 대해 강의한다.

한편 대불청은 4월 25일·5월 30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템플스테이문화사업단과 손을 잡고 20대 청년을 위한 '쓰담쓰담 통통 콘서트'를 개최한다. 4월 25일 첫 번째 콘서트는 연등회 국제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공연으로 '이등병의 편지'를 부른 가수 겸 작곡가 김현성씨가 범정 스님의 산문과 만해 한운스님의 시를 음악에 담아 들려준다. 5월 30일에는 유명시인들의 시와 문학작품에서 발췌한 '광화문 글판'을 음악으로 선보인다. 특히 이 공연에서는 고은 시인의 명상과 선을 주제로 한 짧은 시와 노래들이 소개된다.

대불청은 "이번 연등회 자원봉사는 젊은 청년들이 주축이 돼 진행됨으로써 점점 친해되고 있는 한국불교 및 전통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며, 한국불교의 활동적이며 경쾌한 이미지로의 전환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내·외국인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열정적이고 재능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해 한국불교 및 연등회의 국제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한국문화 직접 보고 느끼니 원더풀"

파라미타, 한국·홍콩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열어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는 홍콩 학생들(좌). 홍콩 학생들은 1박 2일 동안 파라미타 청소년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문화를 밀접하게 체험했다(우).

"한국 IT기술과 한글의 우수성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3월 28일~4월 1일 홍콩 청소년을 초청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한국학생과 교류하는 '한국·홍콩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실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실시된 국제교류활동은 홍콩 HKFYG Lee Shau Kee College 소속 청소년 30명과 교사 3명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청소년들과 함께 한국의 역사문화와 과학기술, 홈스테이 등을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3월 28일 한국에 온 홍콩청소년들은 둘째 날인 29일부터 국립과천과학관, 디지털과빌리온,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명동 등을 탐방했으며, 셋째 날인 30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고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관에서 영상과 슬라이드로 한국문화를 배우고 한복입어보기를 체험했다.

이날 한국문화 알리기는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용) 산하 단체인 한국의정신과문화알리기회가 맡았다. 홍콩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석굴암, 사리함을 비롯해 한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과 거북

선 및 IT산업, 한국의 명절 등을 영상으로 통해 배웠다.

이날 행사에서 홍콩 학생들은 세배 체험을 하고 한복을 입고 한식을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황개운(여·16) 양은 "이번 한국 방문이 두 번째다. 한국 아이돌 그룹 '틴탑'을 좋아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한글도 배웠다"며 "이번 체험으로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이 IT강국이라는 것에 놀라게 됐다. 한복도 색깔이 알록달록해 매우 예쁘고 좋았다"고 말했다.

홍콩 교사인 톰 차우(남·27) 씨는 "텔레비전으로만 한국의 문화를 보다 이번엔 처음 방문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한국문화는 원더풀(wonderful)했다. 학생들에게도 매우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이어 파라미타는 한국 가정 대면식을 진행했다. 홍콩 학생들은 1박 2일 동안 파라미타 청소년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문화를 밀접하게 체험했다.

홈스테이 체험에 참가한 학부모 정주연(40·면목동) 씨는 "언어 때문에 소통이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홍콩학생에게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불교심리치유극 '나도 살고 싶었다' 공연

불교상담개발원, 4월 25일 자살예방 세미나

자살을 주제로 한 불교심리치유극과 전통가무와 공연이 선보인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4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살예방세미나와 불교심리치유공연'을 개최한다.

자살예방세미나는 오후 2시 국제회의장에서 '자살예방과 함께하는 불교'를 주제로 열린다. 최훈동 한별정신병원 원장이 '자살과 불교'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박종익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이 '노인자살의 원인과 문제점'을, 이범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가 '노인자살의 불교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이날 불교심리치유공연은 오후 5시 30분부터 지하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박희석 마음순리상담센터 소장의 진행으로 살고 싶었지만 자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치유극으로 표현한 '나도 살고 싶었다'와 자살 영가를 위한 제의식인 '영가에게 편지쓰기'와 '아미타경' 등이 스님들의 집전으로 진행된다. 또한 새로운 탄생의 의미를 담은 전통가무약도 선보인다.

심리치유공연 '나도 살고 싶었다' 관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장권(3만원)을 구매해야 하며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02)737-7378

이나는 기자

삼소회, 에티오피아 여성돕기 회향

11일 오후 7시 서울 유스호텔 '훈훈한 밤'서

불교의 비구니, 천주교의 수녀, 원불교의 여성 교수가 참여한 한국 여성 수도자 모임 삼소회가 에티오피아 소녀 여성돕기 감사의 자리를 갖는다.

삼소회는 4월 11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서울 유스호텔 3층 '훈훈한 밤'에서 에티오피아 소녀 여성돕기 마무리 '감사의 밤'을 갖는다고 밝혔다.

삼소회는 지난 2010년부터 '염소 한마리의 희망'을 주제로 에티오피아 소녀들의 교육과 여성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금활동을 벌여왔다.

삼소회는 "UN 재단의 소녀, 여성기금 협력 파트너로 아프리카 여성들의 교육과



여성 성직자들의 모임 삼소회는 4월 11일 '감사의 밤'을 연다.

조기 결혼 방지, 성매매 금지 등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한 회원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밝혔다. (02)319-1318 이나는 기자

불레협,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모집

4월 16일부터 법회 지도자 아카데미 진행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해만)는 만 9세~13세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자기도전포상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안재현)이 주관하는 행사로 청소년이 자기개발·신체단련·봉사·탐험 활동의 4가지 영역을 일정 기간 동안 참여해 자기 스스로 세운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자기주도성을 키우고 꿈을 찾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4월 18일 까지 전화 또는 방문접수로 받는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개인 도전으로 청소년들에

게 자아발견, 성장, 자립, 인내, 스스로에 대한 책임과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고취시키는 균형 잡힌 비경쟁 자발적 활동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불레협은 4월 16일~6월 27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매주 화·목요일 수도권 포교 활성화를 위한 법회 지도자 아카데미를 연다. 불레협은 "법회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리전달법, 찬불가, 놀이, 프로그램 작성법 등 법회 기획부터 프로그램 지도력까지 이론과 실습에 초점을 두어 재미있고 유익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02)738-7860 이나는 기자

제22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은 불교문화 부흥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과 예술분야에 공로가 크신 분을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22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공모하오니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시 상 내 용	인원	상 금
학술상	불교와 불교학 발전에 뛰어난 학술연구저서(역주포함)를 출간하신 분 심사대상 : 2012년 7월~2013년 6월까지 최근 1년내 출간된 학술연구저서	2명	각 500만원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 2명 각 500만원 예술상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신 분(서화 부문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 하신 분 심사대상 : 최근 2년이내의 실적물		

2. 시상 일
2013년 9월 24일 화요일
3. 후보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본인신청서 또는 추천서(소정양식) 1부
이력서(명함판사진 2매) 1부
공적서 및 증빙자료 1부

4. 접수처 및 접수 방법
①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재단사무국(우 : 137-877)
② 접수 마감 : 2013년 6월 30일
③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 E-mail접수 : runner333kr@naver.com

5. 수상자 발표
2013년 8월 중순 / 개별 통지 및 불교계 언론매체 발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 ☎ 02)586-6521~2, FAX 02)521-994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 行願文化財團
法人 理事長 朱永云

대한불교총화종 총본산 수진사

복지교육문화전승관 및 대웅전 낙성법회

귀의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 호사한 봄날을 맞아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삼보전에 축원드립니다. 대한불교총화종 총본산 수진사에서 대덕큰스님과 내외 귀빈을 모시고 복지교육문화전승관 낙성법회를 봉행합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함께 하시어 법석을 더욱 빛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7년 양력 4월 23일 (음, 3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수진사 대웅전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342-1호)

■ 문 의 : 전화 031)591-7710, ☎ 031)591-3364 (총무소) / 팩스 031)591-7121

※ 화환은 정중히 사절하며, '자비미살 나누기' 동참접수 합니다.
※ 만등불사 안내 - 낙성법회 당일까지 도량을 장엄한 만등불사를 접수합니다.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수진사 주지 전남정 합장